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박영신¹⁾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첫째, 초, 중, 고등학생 집단간에 생활만족도와 사회적 지원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및 민병기(1999)의 연구모형을 수정 보완하여, 초, 중, 고등학생 집단 각각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분석을 시도하므로써,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셋째,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3,095명(초 961명, 중 898명, 고 1,236명)이었다. 공변량분석 결과, 초, 중, 고등학생 집단간에 생활만족도와 사회적 지원 및 자기효능감에서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초등학생이 가장 생활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부모나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됨에 따라 감소하지만, 친구로부터의 지원은 증가하는 차이가 있었다. LISREL 8을 활용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한 결과,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있고,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가 학업성취에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 제공자별로 볼 때,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됨에 따라 교사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아버지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별히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매우 영향력있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만족하고 행복한 삶은 사람들의 소망이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특정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나아가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및 민병기(1999)는 도시와 농촌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 변인을 지원제공자의 측면에서 보다 정교화하고, 생활만족도 형성에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할 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가 성취행동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의 면에서 정교화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초등학생만이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모형의 검증을 시도하므로써, 집단간의 차이 및 유사성에 대한 파악에도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초, 중, 고등학생들의 생활만족도 형성에 있어 사회적 지원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검토하고, 나아가서 생활만족도와 관련 변인들이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전국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21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1,890명을 대상으로 하루 일과를 조사한 바(김애송, 남희순, 1986)에 의하면, 평일의 하루 공부시간이 초등학생은 8시간 51분, 중학생은 11시간

1 교신저자 : 박영신, 인천시 남구 용현4동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402-751. E-mail: yspark@inha.ac.kr

48분, 고등학생은 13시간 25분이었다. 이 조사를 한지 약 15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초 중등학교에서 학력향상 위주의 교육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하루 평균 공부시간이 이 조사 당시보다 현재 감소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김의철과 박영신(1997)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건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였을 때, 성적이나 시험 또는 공부와 같이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낸 결과를 통해서도, 학생들의 스트레스나 생활만족도가 학업성취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의 관심은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의 파악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초, 중, 고등학생 집단간에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원이나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세 집단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년집단 내에서도 발달단계에 따라 심리 행동특성에 차이가 있고, 환경에서 주어지는 요구나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들의 차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생활만족도의 형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초, 중, 고등학생 집단 각각에서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나아가서 초, 중, 고등학생 집단 각각에서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들이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인간이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는데 있어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왔다. 즉 내집단의 강한 결속력은 질병을 완화시키며(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고 사망률이 높다(House, Landis, & Umberson, 1988). 이러한 신체적인 건강의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 면에서도, 사회적 지원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예컨대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 해결과정

에서도 중요하며(Kim, 1996), 사회적 지원을 통한 보상과 안정감은 정신병의 발병률도 적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Lumsden, 1984). 또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한 지원이 부정적인 피드백보다 훨씬 높은 자기만족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Jourden,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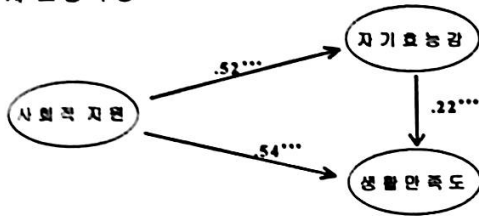
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부모, 교사 및 친구의 사회적 지원은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특히 부모의 지원은 가정 학교 사회환경과 관련된 많은 투입변인들 중에서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다(김의철, 박영신, 1999a). 또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가정생활만족을,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학교 생활만족을 설명하는 변량이 가장 높았다(김의철, 박영신, 박금주, 1998). 한편 초 중 고 대학생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예정)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애정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뿐만 아니라 성취동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회적 지원은 생활만족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의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Bandura(1997)는 격려나 칭찬과 같은 언어적 설득이 자기효능감의 형성에 기초가 됨을 밝히고, 이러한 사실은 많은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에 의해 검증되어 왔다. 예컨대 Jourden(1991)의 연구에서 동일한 성취에 대해 수행을 획득한 면에 초점을 두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한 것은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켰고 후속성취도를 증가시킨 반면, 도달해야 하는 목표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면에 중점을 둔 피드백은 개인의 효능감과 성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계효능감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예언력있는 변인이었다(김의철, 박영신, 1998).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박영신 등(1999)은 도시와 농촌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인과모형을 검증한 바 있다. 공변량구조분석을 하였을 때 그림 1과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원은 생활만족도에 대해 높은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도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직접효과가 높았으며, 자기효능감

도 생활만족도에 대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즉 부모나

<도시 초등학생>



<농촌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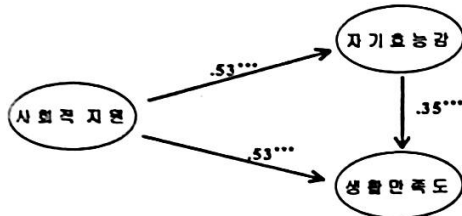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친구 및 교사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단순한 상관관계의 차원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원 및 자기효능감이 각각 생활만족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의 누적이라기 보다, 이들 변인들간의 관련성 즉 매개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규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의 결과로는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는지, 만약 영향이 있다면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박영신 등(1999)의 연구에서 밝혀

진 인과모형을 토대로 사회적 지원을 부, 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원으로 세분하여,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만족도 형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영신 등(1999)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사회적 지원은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또한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확인에 주된 관심이 있다. 둘째, 사회적 지원을 부, 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원으로 분류하여 이러한 변인들간의 관계를 검증하였을 때, 누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의미있는지, 또한 상대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다 정교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박영신 등(1999)의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 각각을 대상으로 분석하므로써, 생활만족도의 형성에 대한 인과모형이 발달단계에 따라 어떠한 차이와 유사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와 성취의 관계

학생들에게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학업에서의 성취이다. 이는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김의철과 박영신(1998)이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공이 학업성취였다는 사실에 의해서 확인된다. 또한 이러한 성공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으로, 학생이나 성인 모두 부모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학생들은 부모 다음으로 친구 및 교사의 순서로 응답하였다(김의철, 박영신, 1998). 한편 미래성취를 위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학생은 부모를, 성인은 배우자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박영신, 김의철, 1999a). 이러한 결과로부터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업성취가 중요하며, 학업성취를 위해 특별히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고, 이외에도 친구의 지원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원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적 지원은 자기효능감과 밀접히 관련되고,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와 높은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 Collins(1982)에 의하면, 수학능력상 중 하집단 모두에서 수학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수학성취도가 높았다. 또한 Zimmerman, Bandura, 및 Matinez-Pons(1992)의 분석 결과는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취효능감이 높고, 나아가서 높은 학업성취효능감은 학생의 학업 포부수준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높은 학업성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높은 학업성취효능감이 직접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경로계수도 의미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업성취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함을 밝혀주는 결과이다. 김의철과 박영신(1999a)이 한국의 도시와 농촌 중학생 5,50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다양한 심리특성 변인들 가운데서 포부수준($\beta=.36, p<.001$)과 학업성취효능감($\beta=.33, p<.001$)이 학업성취에 대해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또한 Park과 Kim(1999a)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취효능감과 학업성적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의 성취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작업자들은 안전을 실천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이 소속한 회사의 중대재해나 가벼운 재해율이 낮았다(박영신, 박동현, 김의철, 1998).

한편 생활만족도도 학업성취를 예언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포함되어, 포부수준, 학업성취효능감,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생활만족도 변인 4개가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변량이 64%나 되었다(김의철, 박영신, 1999a). 또한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학업성적과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가정생활만족보다는 학교생활만족이 학업성적과 더욱 상관이 높다(김의철 등, 1998). 중 고등학생과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박영신과 김의철(1998)의 연구에서도 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도는 정적 상관($r=.26, .22$)을 보였다. 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의 정적인 관계는 상관분석에서 뿐만 아니라 요인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박영

신과 김의철(1999b)이 학생(초, 중, 고, 대학생)과 성인(교사 직장인 주부)의 귀인양식 성취동기 정신건강 성취도 가정환경의 요인구조를 검토한 결과, 생활만족도는 스트레스 및 성취도와 동일한 요인에 포함되었다. 또한 모든 분석집단에서 생활만족도 요인부하량의 방향이 성취도와 동일하였으나 스트레스와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즉 생활에서 만족하는 학생들일수록 스트레스는 적고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성인의 경우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직업 및 사회생활에서의 성취가 높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박영신 등(1999)의 인과모형에 학업성취 변인을 추가하므로써, 생활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원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과 비교하고자 한다.

초, 중, 고등학생의 심리 행동특성의 차이

청소년집단 내에서도 발달단계에 따라 심리적인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 귀인양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 중 고 대학생 집단간에 차이가 있어,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됨에 따라 노력귀인은 감소하고 능력귀인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박영신과 김의철(1997)의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박영신과 김의철(1999b)의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초등학생이 중, 고, 대학생보다 훨씬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였다.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동들을 비교한 결과(Park & Kim, 1999b)에서도, 의미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폭력행동을 신체적 심리적 폭력이나 금품갈취 및 강제로 시키기 성희롱의 5개 하위변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 초, 중, 고등학생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중학생이 폭력 피해행동 뿐만 아니라 폭력가해행동에서도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청소년집단 내의 심리적 행동적 차이는 청소년세대 내의 연령집단별 차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김명언, 김의철과 박영신(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 중,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10대와 대학생으로 구성된 20대가 차이를 보였다. 10대가 20대

보다 더욱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고, 20대가 10대보다 자아실현이나 부귀영화와 관련된 생활목표가 강하였다. 부러워하는 대상과 관련하여 20대는 벤처 창업과 같은 전문직을 보다 선호하는 반면에, 10대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은 인기직업을 더욱 부러워하였다. 행동 면에서도 차이가 있어, 10대가 더욱 전통지향적 역할행동을, 20대가 더욱 진보지향적인 역할행동을 나타낸다. 또한 신세대의 머리염색이나 남자가 귀걸이하기 또는 연예인처럼 옷 입기와 같은 멋 내기에 대한 평가에 있어 20대가 더욱 긍정적으로 하며, 컴퓨터나 통신기기도 다양하게 활용하는 차이가 있다.

청소년 집단 내에서의 이러한 심리 행동적인 차이는,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시사된다. 박영신과 김의철(예정)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부모가 매우 성취지향적이고 애정적인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거부적이고 무관심한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는 낮았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대학생간에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가 가장 부모의 애정

과 통제를 많이 받고, 정서적 정보적 지원도 많이 받았으며, 부모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고, 실제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았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의 사회적 지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 집단 내에서도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모형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생활만족도의 형성과 영향에 관한 인과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부, 모, 교사,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을 의미하는 4개 변인이 외생변인이고,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및 학업성취도는 내생변인으로서, 7개의 잠재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와 모의 사회적 지원 측정변인은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의 3개이며, 교사와 친구 사회적 지원의 측정변인은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의 2개 변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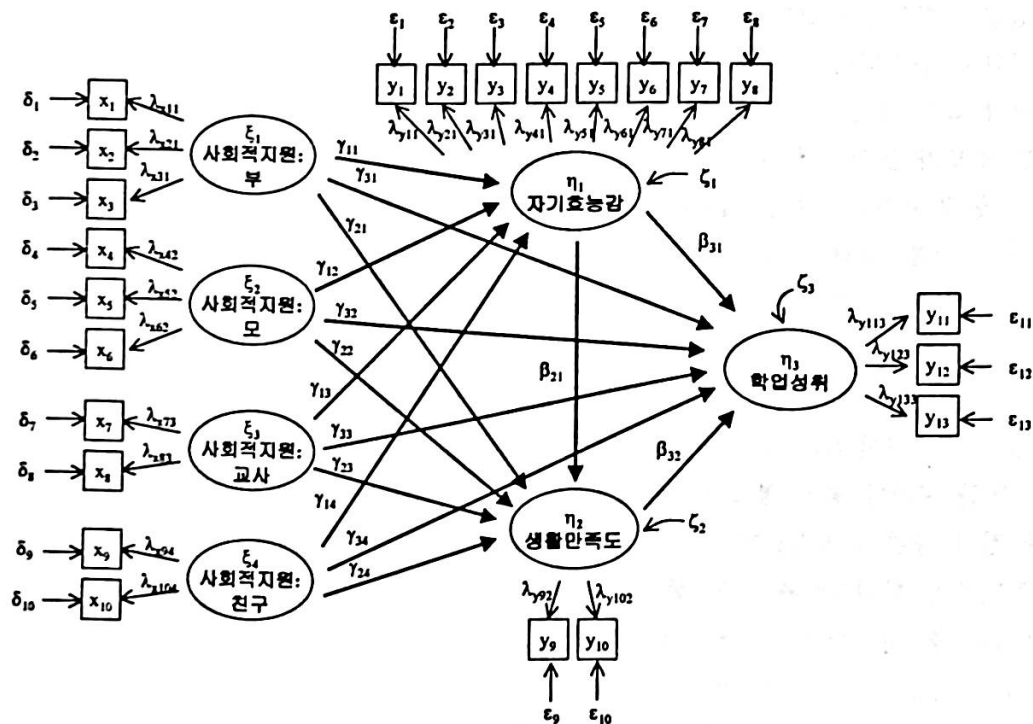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인과모형

자기효능감의 측정변인은 8개로서, 학업성취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여가시간활용효능감, 주위사람기대일치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 자기조절동기효능감, 사회성효능감, 관계효능감이다. 생활만족도는 가정생활만족과 학교생활만족의 2개 변인이 측정변인으로 포함되었다. 학업성취는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 자연, 산수가, 중 고등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이 측정변인이다.

잠재변인들간의 경로는, 박영신 등(1999)의 인과 모형과 동일하게 사회적 지원에서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로 가는 경로와 자기효능감에서 생활만족도로 가는 경로를 가정하였다. 단 사회적 지원을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으로 분류한 점만 차이가 있다. 이외에 이 연구에서 학업성취변인이 추가되므로써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에서 학업성취로 연결되는 경로가 설정되었다.

방 법

대 상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초, 중, 고등학생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생은 인천시내 2개 초등학교 6학년 전체를 각각 412명, 558명씩 표집하여 총 970명이 응답하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9개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중학생도 인천시내 2개 중학교 3학년 전체를 각각 428명 470명 표집하여 총 898명이 표집되어,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고등학생은 부천시의 2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각각 305명 262명을, 시흥시의 1개 고등학교에서 인문계와 실업계 각각 327명, 156명을, 안산시의 1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30명, 수원시의 1개 실업고등학교에서 64명, 수원시의 1개 특수목적고에서 92명을 각각 표집하여 총 1,236명이 표집되었다.

학교의 지리적 위치, 부모의 교육열과 사회경제적 수준, 사회적인 평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2개 초등학교에 소속한 학생들은 중간이거나 중-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중간이거나 중-상 정도에 속한다. 고등학생은 매우 다양하

여, 특수목적고의 경우는 극단적인 상 집단에 속하며, 부천시의 2개 인문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성적 및 생활 수준이 상 집단으로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표하는데 무리가 없다. 시흥시의 고등학교는 중간이거나 중-하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안산시 및 수원시의 실업고는 하집단이다.

이 연구에 최종 분석대상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총 3,095명이었으며, 초등학생이 961명, 중학생이 898명, 고등학생이 1,236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1,471명, 여자가 1,616명이었으며, 무응답이 8명이었다.

표 1
분석대상

	남자	여자	무응답	계
초등학생	479	482		961
중학생	421	470	7	898
고등학생	571	664	1	1,236
전체	1,471	1,616	8	3,095

도 구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김의철과 박영신(1999a)이 사용한 질문지 중에서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김의철 등(1998), 박영신 등(1999)의 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으며, 각각의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토한 결과들은 양호하였다.

사회적 지원은 연구자가 제작한 부지원, 모지원, 교사지원, 친구지원의 4개 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지원과 모지원은 정서적 정보적 경제적 지원을, 교사지원과 친구지원의 경우는 정서적 정보적 지원을 하위변인으로 측정하였고, 각각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초, 중, 고등학생 집단 각각에 대해 Cronbach α 계수를 구한 결과가 표 2이다. 신뢰도는 .71~.95로 양호하였다.

자기효능감은 8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Bandura(1995)가 제작한 자기효능감 질문지의 9개 변인을 박영신(1997)이 검토한 결과에 기초하여, 김의철과 박영신(1999a)의 연구에서 5개 변인, 즉 학업성취

표 2
측정도구 신뢰도

	변인	초	중	고
부지원	정서	.90	.92	.93
	정보	.80	.84	.88
	경제	.73	.81	.84
모지원	정서	.87	.92	.93
	정보	.80	.86	.86
	경제	.71	.81	.85
교사지원	정서	.91	.92	.93
	정보	.78	.85	.87
친구지원	정서	.88	.93	.92
	정보	.95	.87	.87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76	.80	.80
	자기조절학습	.82	.85	.88
	여가시간활용	.73	.79	.82
	주위사람기대일치	.70	.72	.78
	자기주장	.59	.67	.74
	자기조절동기	.73	.73	.74
	사회성	.78	.82	.89
	관계	.64	.67	.74
생활만족도	가정생활	.66	.85	.92
	학교생활	.58	.61	.62

사람기대일치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을 활용하였다. 또한 Zimmerman과 Bandura(1994)가 제작한 자기조절동기효능감 및 김의철과 박영신(1999a)이 제작한 사회성효능감과 관계효능감을 포함하여 총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김의철과 박영신(1999a), 김의철 등(1998), 박영신 등(1999)의 연구에서도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를 구한 결과도 자기주장효능감에 대한 초등학생 신뢰도가 .59로 낮게 나타난 외에는, 모두 .64~.89사이의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생활만족도는 김의철 등(1998)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가정생활만족과 학교생활만족의 2개 하위변인으로 측정하였으며, 각각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김의철 등(199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표 2에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이 .58로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호한 신뢰도를 보인다. 자기주장효능감 및 학교생활만족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문항의 수가 각각 4개, 3개로 적은 것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학업성취도는 초등학생의 경우는 국어, 자연, 산

수에 대해, 중·고등학생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 각각 "수 우 미 양 가" 중에 골라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수를 5점, 가를 1점으로 처리하였다. 학업성취도를 제외한 모든 측정문항에 대한 답지는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기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실시 및 분석방법

연구자가 초, 중, 고등학교 교감 및 교사로 재직하는 학교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각 교실에서 실시하고 질문지 실시의 전체과정을 관리하였다. 연구자가 재직하지 않는 학교에서의 표집을 위해서는 각 학교장의 허락과 수업담당 교사의 도움을 받아 수업시간에 직접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가 한국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종단연구 설계의 출발이 되는 1차년도 자료수집임을 교장선생님께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이 보다 성실한 반응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연구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모든 응답자들에게 볼펜을 선물하여, 질문지 실시 후에 각자 갖도록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토한 뒤에, 자료 분석을 두 면에서 하였다. 첫째로,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성별을 공변인으로 하고 공변량분석을 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종속변인들에 대해 Duncan 사후검증을 하여 초, 중, 고등학생 집단 중에 어떤 집단간의 차이인지를 평균 비교에 의해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된 통계분석은 SPSS WIN을 활용하였다.

두 번째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LISREL 8을 이용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했다. 먼저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척도와 편포도를 검토하므로써 공변량구조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했다. 다음으로는 전반적 적합도 검증과 모형수정을 통하여 최종수정모형을 결정하였으며, 여기에서의 적합도 지수는 GFI값 .90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론모형과 측정모형 각각에 대해 최종수정모형의 세부적 적합도 검토를 하고, 이론모형에 대한 효과분석을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초, 중,

고등학생 집단 각각의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 만족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모형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결 과

초, 중, 고등학생 생활만족도와 관련 변인의 차이

초, 중, 고등학생 집단별 생활만족도와 관련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Duncan 검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세 학교수준별 집단을 합한 전체집단의 평균을 보면, 사회적 지원의 경우에 모 사회적 지원의 평균이 가장 높고, 두 번째로 친구 사회적 지원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부 사회적 지원, 교사 사회적 지원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으며,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받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경우는 사회성효능감의 평균이 가장 높으며, 주위사람기대일치 효능감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또한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정도가 매우 높으나,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정도가 낮았다.

표 4는 성별을 공변인으로 했을 때, 학교수준별 생활만족도와 관련 변인의 차이를 공변량분석한 결과

이다. 초, 중, 고등학생들이 사회적 지원이나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변인으로 처리하였다. 사회적 지원의 경우에 학교수준별로 4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3에서 학교수준별 평균을 비교하면, 부와 모 및 교사의 사회적 지원 모두 초등학생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서로 낮아졌다. 반면에 친구의 사회적 지원은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서로 높아졌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받으며, 점차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낮아지나, 친구의 사회적 지원은 증가하므로써,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자기효능감의 경우는 자기주장효능감($p < .05$)과 주위사람기대일치효능감($p < .01$)을 제외한 6개 하위변인에서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참고). 학교수준별 평균 차이를 보면(표 3 참고), 8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다. 학업성취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자기조절동기효능감의 경우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는 높은 평균을

표 3
학교수준별 생활만족도와 관련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초 M(SD)	중 M(SD)	고 M(SD)	전체 M(SD)
사회적 지원	부	5.37 (1.09) ^b	4.79 (1.13) ^a	4.78 (1.15) ^a	4.96 (1.16)
	모	5.77 (.97) ^b	5.37 (1.05) ^a	5.28 (1.00) ^a	5.46 (1.03)
	교사	4.80 (1.28) ^c	4.33 (1.23) ^b	4.00 (1.24) ^a	4.34 (1.29)
	친구	4.76 (1.37) ^a	5.13 (1.21) ^b	5.26 (1.01) ^c	5.07 (1.21)
	전체	5.18 (.83) ^c	4.91 (.81) ^b	4.83 (.77) ^a	4.96 (.82)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4.35 (1.02) ^c	3.85 (.98) ^a	4.02 (1.01) ^b	4.07 (1.03)
	자기조절학습	4.00 (.96) ^b	3.75 (.94) ^a	3.98 (1.01) ^b	3.92 (.98)
	여가시간활용	4.40 (1.10) ^b	4.06 (1.07) ^a	4.00 (1.13) ^a	4.14 (1.12)
	주위사람기대일치	4.01 (1.09) ^b	3.89 (.98) ^a	3.86 (1.03) ^a	3.91 (1.04)
	자기주장	4.22 (1.21) ^b	4.09 (1.12) ^a	4.12 (1.18) ^{ab}	4.15 (1.17)
	자기조절동기	4.44 (1.08) ^c	4.09 (.97) ^a	4.19 (.98) ^b	4.24 (1.02)
	사회성	4.90 (1.01) ^c	4.62 (.97) ^b	4.57 (1.00) ^a	4.69 (1.00)
	관계	4.40 (1.14) ^b	4.14 (1.03) ^a	3.99 (1.14) ^a	4.16 (1.12)
	전체	4.34 (.82) ^b	4.06 (.76) ^a	4.09 (.81) ^a	4.16 (.81)
생활만족도	가정생활	5.58 (1.20) ^b	4.80 (1.39) ^a	4.72 (1.30) ^a	5.01 (1.35)
	학교생활	4.38 (1.25) ^c	3.77 (1.17) ^b	3.61 (1.17) ^a	3.90 (1.24)
	전체	4.90 (.95) ^b	4.32 (.96) ^a	4.26 (.92) ^a	4.48 (.98)

주. ^{a, b, c}는 사후검증(Duncan-test) 결과, $p < .05$ 수준에서 동질집단을 표시한 것임.

표 4

학교수준별 생활만족도와 관련 변인에 대한 공변량분석: 공변인(성별)

	변인	변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사회적 지원	부	집단간 집단내	224.15 3850.71	2 3031	112.08 1.27	88.22 ***
	모	집단간 집단내	138.73 3087.63	2 3057	69.37 1.01	68.68 ***
	교사	집단간 집단내	340.44 4782.08	2 3063	170.22 1.56	109.03 ***
	친구	집단간 집단내	128.28 4196.27	2 3059	64.14 1.37	46.76 ***
	전체	집단간 집단내	67.67 1905.82	2 2993	33.83 .64	53.13 ***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집단간 집단내	117.15 3096.72	2 3079	58.57 1.01	58.24 ***
	자기조절학습	집단간 집단내	35.65 2914.84	2 3075	17.83 .95	18.80 ***
	여가시간활용	집단간 집단내	93.41 3743.00	2 3078	46.71 1.22	38.41 ***
	주위사람기대일치	집단간 집단내	13.29 3294.34	2 3081	6.64 1.07	6.21 **
	자기주장	집단간 집단내	8.34 4209.07	2 3081	4.17 1.37	3.05 *
	자기조절동기	집단간 집단내	59.69 3126.91	2 3074	29.85 1.02	29.34 ***
	사회성	집단간 집단내	93.99 3774.06	2 3078	47.00 1.23	38.33 ***
	관계	집단간 집단내	65.12 3020.80	2 3066	32.56 .99	33.05 ***
	전체	집단간 집단내	43.15 1945.63	2 3050	21.57 .64	33.82 ***
생활만족도	가정생활	집단간 집단내	455.96 5166.85	2 3068	227.98 1.68	135.37 ***
	학교생활	집단간 집단내	333.08 4361.06	2 3063	166.54 1.42	116.97 ***
	전체	집단간 집단내	244.62 2673.78	2 3039	122.31 .88	139.02 ***

주. * $p<.05$, ** $p<.01$, *** $p<.001$

보이며, 사회성효능감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초등학생이 중 고등학생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학업과 관련된 효능감의 경우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표 4를 보면 생활만족도는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모두에서 $p<.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정생활에 대해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 고등학생은 같은 수준의 평균을 나타내었다. 학교생활의 경우는 초등학생의 평

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중학생이며,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가정 및 학교생활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가장 높으며, 특히 고등학생은 학교생활만족도가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학업성취의 인과관계

그림 2에 제시한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및 정상분포가정을 검토하였다. 다음 단계로 인과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검증을 통해 모형수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선택된 수정모형의 세부적 적합도 검증(이순목, 1990)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수정모형의 이론모형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하였다.

측정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인과모형에서 설정한 측정변인의 상관관계를 초, 중, 고등학생 집단 각각별로 구하였다. 표 5에 제시한 상관관계 표를 보면, 세 집단 모두에

표 5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초등학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㉑	㉒
① 부의 사회적지원: 정서																				
② 부의 사회적지원: 정보	.61																			
③ 부의 사회적지원: 경제	.55	.54																		
④ 모의 사회적지원: 정서	.45	.41	.40																	
⑤ 모의 사회적지원: 정보	.41	.55	.44	.63																
⑥ 모의 사회적지원: 경제	.32	.35	.45	.50	.54															
⑦ 교사의 사회적지원: 정서	.30	.15	.20	.20	.15	.16														
⑧ 교사의 사회적지원: 정보	.22	.22	.21	.20	.25	.23	.55													
⑨ 친구의 사회적지원: 정서	.21	.24	.24	.25	.25	.23	.16	.24												
⑩ 친구의 사회적지원: 정보	.20	.25	.25	.17	.25	.23	.15	.24	.56											
⑪ 효능감: 학업성취	.22	.25	.21	.24	.31	.24	.12	.15	.15	.14										
⑫ 효능감: 자기조절학습	.29	.34	.27	.31	.37	.26	.23	.19	.22	.22	.69									
⑬ 효능감: 여가시간활용	.16	.17	.14	.19	.22	.17	.11	.11	.21	.20	.46	.46								
⑭ 효능감: 주위사람기대일치	.29	.24	.25	.29	.25	.23	.22	.16	.25	.20	.56	.65	.50							
⑮ 효능감: 자기주장	.23	.26	.21	.18	.20	.17	-	.12	.18	.16	.46	.45	.41	.42						
⑯ 효능감: 자기조절동기	.27	.25	.23	.30	.32	.24	.22	.20	.20	.19	.66	.76	.46	.61	.44					
⑰ 효능감: 사회성	.20	.23	.23	.25	.26	.24	.15	.16	.29	.22	.47	.45	.60	.53	.50	.45				
⑱ 효능감: 관계	.37	.30	.31	.34	.32	.27	.25	.26	.29	.20	.46	.55	.46	.53	.41	.52	.51			
⑲ 생활만족: 가정	.44	.30	.36	.40	.34	.29	.17	.16	.20	.13	.20	.25	.15	.29	.21	.29	.23	.39		
⑳ 생활만족: 학교	.23	.10	.11	.19	.14	.12	.44	.30	.14	-	.23	.33	.12	.31	.15	.29	.16	.28	.37	
㉑ 학업성취: 국어	-	.15	.15	-	.15	.16	-	-	.12	.11	.33	.25	.13	.21	.16	.26	.14	.17	-	.15
㉒ 학업성취: 자연	-	.11	-	.10	.12	.13	-	.11	.11	-	.42	.33	.14	.23	.21	.30	.12	.16	-	.15
㉓ 학업성취: 산수	-	-	-	-	.12	-	-	.10	.11	-	.41	.34	-	.24	.18	.30	-	.12	-	.25
																			.38	.54
중학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㉑	㉒
① 부의 사회적지원: 정서																				
② 부의 사회적지원: 정보	.66																			
③ 부의 사회적지원: 경제	.51	.52																		
④ 모의 사회적지원: 정서	.40	.35	.32																	
⑤ 모의 사회적지원: 정보	.36	.45	.36	.68																
⑥ 모의 사회적지원: 경제	.31	.33	.34	.53	.55															
⑦ 교사의 사회적지원: 정서	.29	.22	.17	.22	.15	.15														
⑧ 교사의 사회적지원: 정보	.21	.26	.23	.20	.21	.21	.57													
⑨ 친구의 사회적지원: 정서	.17	.21	.20	.25	.25	.22	.17	.23												
⑩ 친구의 사회적지원: 정보	.18	.24	.24	.28	.33	.22	.21	.21	.60											
⑪ 효능감: 학업성취	.13	.21	.16	.16	.16	.12	-	-	.10	-										
⑫ 효능감: 자기조절학습	.19	.26	.20	.26	.26	.20	-	-	.13	.15	.73									
⑬ 효능감: 여가시간활용	.13	.17	.13	.22	.22	.17	.16	.17	.15	.20	.40	.45								
⑭ 효능감: 주위사람기대일치	.20	.20	.19	.29	.22	.17	.18	.14	.15	.19	.54	.65	.51							
⑮ 효능감: 자기주장	.16	.18	.16	.20	.20	.15	-	-	.13	.16	.47	.45	.42	.39						
⑯ 효능감: 자기조절동기	.19	.27	.21	.24	.24	.19	.10	.11	.13	.17	.66	.75	.43	.63	.46					
⑰ 효능감: 사회성	.13	.16	.12	.21	.24	.22	-	-	.26	.25	.38	.44	.65	.42	.52	.36				
⑱ 효능감: 관계	.31	.25	.27	.38	.31	.25	.25	.23	.32	.30	.42	.51	.54	.57	.41	.49	.45			
⑲ 생활만족: 가정	.47	.40	.37	.47	.36	.39	.23	.20	.15	.16	.17	.23	.11	.28	-	.22	.16	.41		
⑳ 생활만족: 학교	.16	.16	-	.19	.11	.11	.42	.35	.12	-	.32	.31	.15	.36	.14	.30	-	.31	.36	
㉑ 학업성취: 국어	-	-	-	-	-	-	-	-	-	-	.49	.35	-	.25	.16	.30	-	-	-	.25
㉒ 학업성취: 영어	.10	.16	.13	.12	.10	-	-	-	-	-	.48	.42	-	.31	.13	.36	-	.12	.15	.33
㉓ 학업성취: 수학	.12	.14	.15	-	-	-	-	-	-	-	.50	.35	-	.26	.13	.33	-	-	.12	.32
																			.63	.76

서 생활만족도는 사회적 지원이나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중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나 친구 지원에 비해 교사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상관 강도가 낮았다. 자기효능감 하위변인 중에서 학업성취, 자기조절학습, 주위사람기대일치, 자기조절 동기효능감은 학업성취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23개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계수 중에 .90보다 큰 경우는 없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조선배, 1996).

계수산출방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측정변인의 정상분포가정(Muthen & Kaplan, 1984; 이종목, 1990, 재인용)을 검토한 결과, 23개 측정변인 대부분의 첨도와 편포도가 절대값 1이하를 나타내므로 양호하였다. 단 초등학생에서 모의 정서적 지원(첨도: 1.33, 편포도: -1.24), 모의 정보적 지원(첨도: 1.26, 편포도: -1.09), 모의 경제적 지원(첨도: 1.41, 편포도: -1.08)이, 중학생에서 모의 경제적 지원(첨도: 1.59, 편포도: -1.09), 친구의 정보적 지원(첨도: 1.07), 영어학업성취(첨도: -1.22), 수학학업성취(첨도: -1.17)

가, 고등학생에서 모의 경제적 지원(첨도: 1.66, 편포도: -1.17), 친구의 정보적 지원(첨도: 1.39)이 1보다 크나 2보다 적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 적합도 검증과 모형수정

이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이 경험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전반적 적합도검증을 하고, 고정지수(t 값)가 의미없게 나타난 경로를 삭제함으로써 간명한 모형으로 축소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수정모형 1은 모지원→학업성취($\gamma_{32}=.02$, $t=.91$), 수정모형 2는 친구지원→학업성취($\gamma_{34}=.06$, $t=1.19$), 수정모형 3은 친구지원→생활만족도($\gamma_{24}=-.07$, $t=-1.33$), 수정모형 4는 모지원→생활만족도($\gamma_{22}=.10$, $t=1.18$), 수정모형 5는 교사지원→학업성취($\gamma_{33}=-.12$, $t=-1.74$), 수정모형 6은 부지원→생활만족도($\gamma_{21}=.13$, $t=1.62$) 경로를 삭제하였다. 생활만족도→학업성취($\beta_{32}=.17$, $t=1.83$)경로는 t 값이 2보다 작으나 거의 2에 가깝고, 이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기본적인 경로 중의 하나이므로 삭제하지 않았다. 부지원→학업성취(γ

표 5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의 상관관계(계속)

고등학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① 부의 사회적지원: 정서																						
② 부의 사회적지원: 정보	.67																					
③ 부의 사회적지원: 경제	.51	.50																				
④ 모의 사회적지원: 정서	.44	.43	.30																			
⑤ 모의 사회적지원: 정보	.35	.47	.37	.64																		
⑥ 모의 사회적지원: 경제	.26	.32	.32	.44	.47																	
⑦ 교사의 사회적지원: 정서	.31	.24	.16	.25	.25	.15																
⑧ 교사의 사회적지원: 정보	.15	.25	.14	.15	.21	.20	.62															
⑨ 친구의 사회적지원: 정서	.16	.23	.16	.22	.21	.22	.18	.25														
⑩ 친구의 사회적지원: 정보	.16	.18	.15	.15	.24	.25	.21	.22	.58													
⑪ 효능감: 학업성취																						
⑫ 효능감: 자기조절학습	.21	.26	.16	.17	.16	.11	-	-	-	-												
⑬ 효능감: 여가시간활용	.20	.27	.20	.20	.20	.16	.16	.10	.14	.14	.74											
⑭ 효능감: 주위사람기대일치	.15	.17	.13	.17	.19	.14	.11	-	.17	.16	.45	.50										
⑮ 효능감: 자기주장	.25	.23	.18	.27	.23	.16	.25	.18	.21	.14	.51	.62	.52									
⑯ 효능감: 자기조절동기	.13	.17	.13	.14	.17	.12	-	-	.18	.11	.44	.52	.48	.37								
⑰ 효능감: 자기조절동기	.21	.24	.15	.20	.20	.17	.15	.14	.14	.13	.68	.78	.48	.62	.48							
⑱ 효능감: 사회적성	.17	.22	.15	.17	.18	.17	.11	.13	.30	.21	.35	.47	.65	.50	.55	.44						
⑲ 효능감: 관계	.32	.32	.24	.37	.34	.26	.24	.22	.33	.22	.44	.56	.57	.60	.47	.52	.63					
⑳ 생활만족: 가정	.45	.41	.40	.50	.39	.36	.18	.15	.14	.11	.20	.21	.15	.27	.15	.20	.22	.40				
㉑ 생활만족: 학교	.17	.11	.12	.13	.10	-	.48	.36	-	-	.22	.24	.12	.34	-	.25	.16	.26	.32			
㉒ 학업성취: 국어	-	-	-	-	-	-	-	-	-	-	.30	.30	-	.16	-	.23	-	.12	-	.16		
㉓ 학업성취: 영어	.16	.15	-	-	-	-	.11	-	-	-	.36	.37	-	.23	-	.31	-	.12	.26	.45		
㉔ 학업성취: 수학	.12	.11	-	-	.10	-	.18	-	-	-	.35	.33	-	.22	-	.25	-	.11	.30	.30	.53	

$\beta_{31}=-.17$, $t=-2.21$)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나, 수정모형 7에서 이 경로를 삭제하였다. 사회적지원은 학업성취에 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이 경로를 삭제한 모형이 이론적으로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수정모형 7의 GFI는 .87로서 자료에 잘 부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가지수(MI)를 검토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는 미지수를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간명도를 희생하는 대신 모형의 자료에 대한 적합도를 높였다. 수정모형 8은 사회성효능감과 여가시간활용효능감, 수정모형 9는 여가시간활용효능감과 수학성적, 수정모형 10은 자기조절동기효능감과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수정모형 11은 교사 정서적 지원과 학교 생활만족을 단계적으로 자유특징수로 하였다. 수정모형 11은 GFI가 .90이고 $\chi^2/df=5.61$ 로 비교적 5에 가깝게 나타나므로써,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중학생 자료에 대한 전반적 적합도 검증결과, t 값이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하여 모형을 간명하게 하였다. 수정모형 1은 부지원->학업성취($\gamma_{31}=.00$, $t=.06$), 수정모형 2는 친구지원->학업성취($\gamma_{34}=.01$, $t=.09$), 수정모형 3은 교사지원->자기효능감($\gamma_{13}=-.02$, $t=-.18$), 수정모형 4는 부지원->생활만족도($\gamma_{21}=.11$, $t=1.83$) 경로를 삭제하였다. 자기효능감->학업성취($\beta_{31}=.17$, $t=1.81$)경로는 t 값이 2보다 작으나 거의 2에 가깝고, 이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기본적인 경로 중의 하나이므로 삭제하지 않았다. 교사지원->학업성취($\gamma_{33}=-.50$, $t=-3.08$), 모지원->학업성취($\gamma_{32}=-.17$, $t=-2.12$), 친구지원->생활만족도($\gamma_{24}=-.17$, $t=-2.78$)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수정모형 5 수정모형 6 수정모형 7에서 각각 경로를 삭제하였다. 사회적 지원은 학업성취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이 경로를 삭제한 모형이 이론적으로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수정모형 7의 GFI는 .82로서 적합도가 낮으므로, 추가지수(MI)를 검토하여 적합도를 높였다. 수정모형 8에서 사회성효능감과 여가시간활용효능감의 상관을 자유특징수로 하고, 미지수를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GFI=.90 $\chi^2/df=6.11$ 인 수정모형25를 최종모형으로 하였다.

고등학교 자료에 대해 전반적인 적합도를 검증하

였을 때, t 값이 적어 고정시켜도 적합도의 손상이 없는 경로를 삭제하여 최적모형을 탐색하였다. 수정모형 1은 교사지원->자기효능감($\gamma_{13}=.22$, $t=.59$), 수정모형 2는 교사지원->생활만족도($\gamma_{23}=.05$, $t=1.34$) 경로를 삭제하였다. 수정모형 3은 교사지원->학업성취($\gamma_{33}=.08$, $t=2.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그 정도가 미미하고 이론적인 의미가 없어 삭제하였다. 모지원->학업성취($\gamma_{32}=-.28$, $t=-4.55$), 친구지원->학업성취($\gamma_{34}=-.09$, $t=-2.21$), 친구지원->생활만족도($\gamma_{24}=-.11$, $t=-2.86$)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경로를 삭제한 수정모형 4, 수정모형 5, 수정모형 6이 이론적으로 더욱 타당하다. 사회적 지원은 학업성취나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수정모형6의 GFI는 .81로 적합도가 낮으므로, 추가지수에 기초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는 미지수를 단계적으로 추가하였다. 수정모형 7에서 사회성효능감과 여가시간활용효능감의 관계를 추가하고, 단계적으로 계속 추가하여, 수정모형 28(GFI=.90 $\chi^2/df=8.87$)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수정모형의 세부적 적합도 검증

초, 중, 고등학교 자료 각각의 최종수정모형에 대한 세부적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이론모형에 대한 결과는 표 6에, 측정모형에 대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자기효능감의 변량이 부지원 모지원 교사지원 친구지원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70, 생활만족도의 변량이 교사지원 및 자기효능감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55, 학업성취 변량이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75이었다. 허용되는 SMC의 범위가 .20~.99라는 기준(Fassinger, 1987)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교 자료의 이론모형에서 내생변인들이 예측변인에 의해 매우 잘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만족에서 학업성취로 가는 구조경로 외에는 t 값이 모두 2 이상이므로, 의미있는 구조경로라고 할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에 생활만족도의 SMC가 .54, 학업성취의 SMC가 .26으로 양호하였다. 반면에 자기효능감의 경우는 SMC가 .17로 일반적인 허용기준보다 약간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원 모지원 친구지원에서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구조경로들의 t 값이 모

표 6

이론모형의 세부적 적합도 지수와 경로계수: 최종수정모형

학교	구조경로	경로계수	t
초등학교 (수정모형 11)	부지원 -> 자기효능감 (γ_{11})	.16	2.45*
	모지원 -> 자기효능감 (γ_{12})	.27	4.25***
	교사지원 -> 자기효능감 (γ_{13})	.09	2.18*
	-> 생활만족 (γ_{23})	.36	6.43***
	친구지원 -> 자기효능감 (γ_{14})	.15	3.61***
	자기효능감 -> 생활만족 (β_{21})	.46	8.47***
	-> 학업성취 (β_{31})	.50	8.73***
	생활만족 -> 학업성취 (β_{32})	-.01	-.07
중학교 (수정모형 25)	부지원 -> 자기효능감 (γ_{11})	.20	3.97***
	모지원 -> 자기효능감 (γ_{12})	.19	3.62***
	-> 생활만족 (γ_{22})	.24	4.66***
	교사지원 -> 생활만족 (γ_{23})	.35	5.97***
	친구지원 -> 자기효능감 (γ_{14})	.11	2.52*
	자기효능감 -> 생활만족 (β_{21})	.41	7.58***
	-> 학업성취 (β_{31})	.39	8.13***
	생활만족 -> 학업성취 (β_{32})	.18	3.32***
고등학교 (수정모형 28)	부지원 -> 자기효능감 (γ_{11})	.25	5.22***
	-> 생활만족 (γ_{21})	.46	7.21***
	-> 학업성취 (γ_{31})	-.01	-.19
	모지원 -> 자기효능감 (γ_{12})	.14	2.90**
	-> 생활만족 (γ_{22})	.17	3.35***
	친구지원 -> 자기효능감 (γ_{14})	.12	3.26**
	자기효능감 -> 생활만족 (β_{21})	.12	3.64***
	-> 학업성취 (β_{31})	.34	8.92***
생활만족 -> 학업성취 (β_{32})	.12	2.46*	
학교	경로	SMC	
초등학교 (수정모형 11)	부지원, 모지원, 교사지원, 친구지원 -> 자기효능감	.70	
	교사지원, 자기효능감 -> 생활만족도	.55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 학업성취	.75	
중학교 (수정모형 25)	부지원, 모지원, 친구지원 -> 자기효능감	.17	
	모지원, 교사지원, 자기효능감 -> 생활만족도	.54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 학업성취	.26	
고등학교 (수정모형 28)	부지원, 모지원, 친구지원 -> 자기효능감	.16	
	모지원, 모지원, 자기효능감 -> 생활만족도	.42	
	부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 학업성취	.15	

주. * $p < .05$, ** $p < .01$, *** $p < .001$

두 2이상으로 양호하였다. 나머지 β 와 γ 계수들 모두 $p < .001$ 수준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에 표시된 미지수가 유지할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생은 생활만족도의 설명변량만 .42로 높고,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의 경우는 .20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각 경로계수들의 t 값을 보면, 부지원에서 학업성취로 가는 경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호하였다.

최종수정모형의 측정모형에 대해 세부적 적합도 검증을 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 사회적 지원의 하위변인들이 부 사회적 지원

표 7

측정모형의 세부적합도지수와 요인부하량: 최종수정모형

학교	변인구분	측정변인	SMC	t	λ			
					사회적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초 등 학 교	외생변인	부 경제지원	(λ_{x11})	.51	23.55***	.86		
		부 정보지원	(λ_{x21})	.63	26.80***	.93		
		부 정서지원	(λ_{x31})	.57	25.35***	1.14		
		모 경제지원	(λ_{x12})	.44	21.30***	.71		
		모 정보지원	(λ_{x22})	.68	28.43***	.96		
		모 정서지원	(λ_{x32})	.57	25.19***	.93		
		교사 정보지원	(λ_{x13})	.60	19.60***	.96		
		교사 정서지원	(λ_{x23})	.53	18.97***	1.18		
		친구 정보지원	(λ_{x14})	.53	18.31***	1.16		
		친구 정서지원	(λ_{x24})	.60	19.07***	1.15		
	내생변인	학업성취	(λ_{y11})	.61	26.56***		.79	
		자기조절학습	(λ_{y21})	.71	29.41***		.81	
		여가시간활용	(λ_{y31})	.36	19.36***		.66	
		주위사람기대일치	(λ_{y41})	.59	25.94***		.83	
		자기주장	(λ_{y51})	.35	18.87***		.71	
		자기조절동기	(λ_{y61})	.63	27.07***		.86	
		사회성	(λ_{y71})	.40	20.39***		.72	
		관계	(λ_{y81})	.45	22.08***		.68	
		가정생활만족도	(λ_{y12})	.34	12.23***		.70	
		학교생활만족도	(λ_{y22})	.41	12.53***		.80	
		국어성적	(λ_{y13})	.33	16.19***			.57
		영어성적	(λ_{y23})	.59	20.81***			.69
		수학성적	(λ_{y33})	.48	19.54***			.86
중 학 교	외생변인	부 경제지원	(λ_{x11})	.41	19.58***	.82		
		부 정보지원	(λ_{x21})	.70	27.34***	1.05		
		부 정서지원	(λ_{x31})	.58	24.50***	1.11		
		모 경제지원	(λ_{x12})	.44	20.76***	.75		
		모 정보지원	(λ_{x22})	.70	27.95***	.98		
		모 정서지원	(λ_{x32})	.66	26.92***	1.14		
		교사 정보지원	(λ_{x13})	.58	18.27***	1.00		
		교사 정서지원	(λ_{x23})	.52	17.71***	1.04		
		친구 정보지원	(λ_{x14})	.62	19.05***	1.05		
		친구 정서지원	(λ_{x24})	.58	18.50***	1.03		
	내생변인	학업성취	(λ_{y11})	.63	26.77***		.78	
		자기조절학습	(λ_{y21})	.77	29.70***		.82	
		여가시간활용	(λ_{y31})	.31	17.24***		.60	
		주위사람기대일치	(λ_{y41})	.56	24.71***		.74	
		자기주장	(λ_{y51})	.32	17.59***		.64	
		자기조절동기	(λ_{y61})	.67	27.37***		.79	
		사회성	(λ_{y71})	.26	15.47***		.52	
		관계	(λ_{y81})	.42	19.50***		.63	
		가정생활만족도	(λ_{y12})	.35	11.62***		.81	
		학교생활만족도	(λ_{y22})	.40	11.79***		.74	
		국어성적	(λ_{y13})	.54	24.03***			.70
		영어성적	(λ_{y23})	.79	29.48***			1.23
		수학성적	(λ_{y33})	.69	27.77***			1.09

표 7

측정모형의 세부적합도지수와 요인부하량: 최종수정모형 (계속)

학교	변인구분	측정변인	SMC	t	λ			
					사회적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고 등 학 교	외생변인	부 경제지원	(λ_{x11}) .40	23.10***	.82			
		부 정보지원	(λ_{x21}) .67	31.86***	1.05			
		부 정서지원	(λ_{x31}) .66	31.76***	1.23			
		모 경제지원	(λ_{x12}) .33	20.16***	.64			
		모 정보지원	(λ_{x22}) .66	30.72***	.95			
		모 정서지원	(λ_{x32}) .61	29.15***	1.07			
		교사 정보지원	(λ_{x13}) .49	20.30***	.92			
		교사 정서지원	(λ_{x23}) .65	22.60***	1.12			
		친구 정보지원	(λ_{x14}) .63	20.25***	.90			
		친구 정서지원	(λ_{x24}) .51	19.28***	.80			
	내생변인	학업성취	(λ_{y11}) .60	29.74***		.79		
		자기조절학습	(λ_{y21}) .78	34.25***		.89		
		여가시간활용	(λ_{y31}) .43	23.08***		.74		
		주위사람기대일치	(λ_{y41}) .52	28.08***		.73		
		자기주장	(λ_{y51}) .35	21.76***		.69		
		자기조절동기	(λ_{y61}) .69	32.97***		.81		
		사회성	(λ_{y71}) .42	20.90***		.72		
		관계	(λ_{y81}) .51	26.66***		.71		
		가정생활만족도	(λ_{y12}) .74	11.39***			1.10	
		학교생활만족도	(λ_{y22}) .12	11.79***			.41	
		국어성적	(λ_{y13}) .29	17.44***				.45
		영어성적	(λ_{y23}) .74	23.99***				.92
		수학성적	(λ_{y33}) .34	18.95***				.70

주. *** $p < .001$

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51~.63, 모 사회적 지원은 .44~.68, 교사 및 친구의 사회적 지원은 모두 .53~.60이었다. 따라서 각각의 하위변인들은 부지원 모 지원 교사지원 및 친구지원을 설명하는 좋은 측정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 측정변인들의 SMC는 .35~.71, 생활만족도의 SMC는 .34~.41, 학업성취도의 SMC는 .33~.59를 나타내므로써, 각각의 변인들을 양호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λ 에 대한 t 값들도 모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므로, 측정변인들이 모두 유지할 가치가 있는 의미있는 변인들임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은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변인들의 SMC가 .41~.70으로 매우 높고, 내생변인들의 경우도 .26~.77로 양호하였다. 또한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λ 에 대한 t 값들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여, 측정변인들 모두가 이론변인을 측정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중요한 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도 외생변인들의 SMC는 .33~.67이고, t 값들도 모두 $p < .001$ 수준에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생변인들의 SMC 중에서 학교생활만족을 제외하면 .34~.78로 모두 높은 값을 보이고, 학교생활만족을 포함하여 모든 변인들의 t 값들이 유의하였다.

표 6과 표 7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부분적으로 세부적 적합도지수가 낮은 변인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최종 수정모형의 구조경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이론모형의 인과관계 추정

최종수정모형의 효과분석을 한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학업성취에 대한 전제효과는 자기효능감이 .50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표 8

최종수정모형의 효과분석

학교	구조경로	직접효과(t)	간접효과(t)	전체효과(t)
초등학교 (수정모형 11)	부지원	-> 자기효능감(γ_{11})	.16 (2.45 [*])	.16 (2.45 [*])
		-> 생활만족 (γ_{21})	-	.07 (2.36 [*])
		-> 학업성취 (γ_{31})	.08 (2.41 [*])	.08 (2.41 [*])
	모지원	-> 자기효능감(γ_{12})	.27 (4.25 ^{***})	.27 (4.25 ^{***})
		-> 생활만족 (γ_{22})	.13 (3.86 ^{***})	.13 (3.86 ^{***})
		-> 학업성취 (γ_{32})	.14 (4.05 ^{***})	.14 (4.05 ^{***})
	교사지원	-> 자기효능감(γ_{13})	.09 (2.18 [*])	.09 (2.18 [*])
		-> 생활만족 (γ_{23})	.36 (6.43 ^{***})	.40 (6.81 ^{***})
		-> 학업성취 (γ_{33})	.05 (1.49)	.05 (1.49)
	친구지원	-> 자기효능감(γ_{14})	.15 (3.61 ^{***})	.15 (3.61 ^{***})
		-> 생활만족 (γ_{24})	.07 (3.35 ^{***})	.07 (3.35 ^{***})
		-> 학업성취 (γ_{34})	.08 (3.48 ^{***})	.08 (3.48 ^{***})
중학교 (수정모형 25)	부지원	-> 자기효능감(γ_{11})	.20 (3.97 ^{***})	.20 (3.97 ^{***})
		-> 생활만족 (γ_{21})	-	.08 (3.49 ^{***})
		-> 학업성취 (γ_{31})	.09 (3.81 ^{***})	.09 (3.81 ^{***})
	모지원	-> 자기효능감(γ_{12})	.19 (3.62 ^{***})	.19 (3.62 ^{***})
		-> 생활만족 (γ_{22})	.24 (4.66 ^{***})	.32 (5.67 ^{***})
		-> 학업성취 (γ_{32})	.13 (4.56 ^{***})	.13 (4.56 ^{***})
	교사지원	-> 자기효능감(γ_{13})	.35 (5.97 ^{***})	.35 (5.97 ^{***})
		-> 생활만족 (γ_{23})	-	.06 (3.04 ^{**})
		-> 학업성취 (γ_{33})	.06 (3.04 ^{**})	.06 (3.04 ^{**})
	친구지원	-> 자기효능감(γ_{14})	.11 (2.52 [*])	.11 (2.52 [*])
		-> 생활만족 (γ_{24})	.05 (2.40 [*])	.05 (2.40 [*])
		-> 학업성취 (γ_{34})	.05 (2.48 [*])	.05 (2.48 [*])
고등학교 (수정모형 28)	부지원	-> 자기효능감(γ_{11})	.25 (5.22 ^{***})	.25 (5.22 ^{***})
		-> 생활만족 (γ_{21})	.46 (7.21 ^{***})	.49 (7.50 ^{***})
		-> 학업성취 (γ_{31})	-.01 (-.19)	.13 (3.47 ^{***})
	모지원	-> 자기효능감(γ_{12})	.14 (2.90 ^{**})	.14 (2.90 ^{**})
		-> 생활만족 (γ_{22})	.17 (3.36 ^{***})	.19 (3.36 ^{***})
		-> 학업성취 (γ_{32})	.07 (3.36 ^{***})	.07 (3.36 ^{***})
	친구지원	-> 자기효능감(γ_{14})	.12 (3.26 ^{**})	.12 (3.26 ^{**})
		-> 생활만족 (γ_{24})	.04 (3.10 ^{**})	.04 (3.10 ^{**})
		-> 학업성취 (γ_{34})	.04 (3.10 ^{**})	.04 (3.10 ^{**})
	자기효능감	-> 자기효능감(β_{21})	.12 (3.64 ^{***})	.12 (3.64 ^{***})
		-> 생활만족 (β_{31})	.34 (8.92 ^{***})	.35 (9.33 ^{***})
		-> 학업성취 (β_{32})	.12 (2.46 [*])	.12 (2.46 [*])

주. * $p < .05$, ** $p < .01$, *** $p < .001$

모지원으로 .14를 나타내나, 그 외에는 전체효과가 .46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교사지원으로 .40, 도가 약하였다. 생활만족도는 자기효능감의 전체효과 모지원이 .13을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모지원의 전체효과가 .27, 부지원이 .17, 친구지원이 .16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자기효능감이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형성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가장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는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교사의 사회적 지원으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표 8에서의 직접효과를 기초로 검증모형에 대한 각각의 효과를 그림으로 제시한 결과가 그림 3이다.

표 8의 전체효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취에 가장 영향력이 많은 변인은 자기효능감이며, 생활만족도는 자기효능감에 의해 가장 설명력이 높고, 그 다음으로 교사의 지원도 중요하며,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지원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중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는 자기효능감에 의한 전체효과가 .46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생활만족도가 .18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의 경우에는 자기효능감의 전체효과가 .4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사

지원이 .35, 모지원이 .32로 높았다. 자기효능감은 부지원이 .20, 모지원이 .19로 가장 큰 전체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중학생의 경우에도 학업성취를 예언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은 자기효능감이고, 생활만족도는 자기효능감에 의해 가장 설명력이 크며, 그 다음으로 교사의 사회적 지원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초등학생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단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사회적 지원이 더 중요한 변인으로 부각되는 점에서 초등학생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초등학생은 생활만족도가 학업성취를 예언하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데 비해, 중학생은 비록 자기효능감보다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지만, 의미있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초등학생과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생도 학업성취에 대한 전체효과는 자기효능감이 .3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부지원 .13, 생활만족도 .12의 순서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부지원이 .49로 가장 높은 전체효과를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모지원 .19, 자기효능감 .12의 순서이었다.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부지원의 전체효과가 .2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모지원 .14, 친구지원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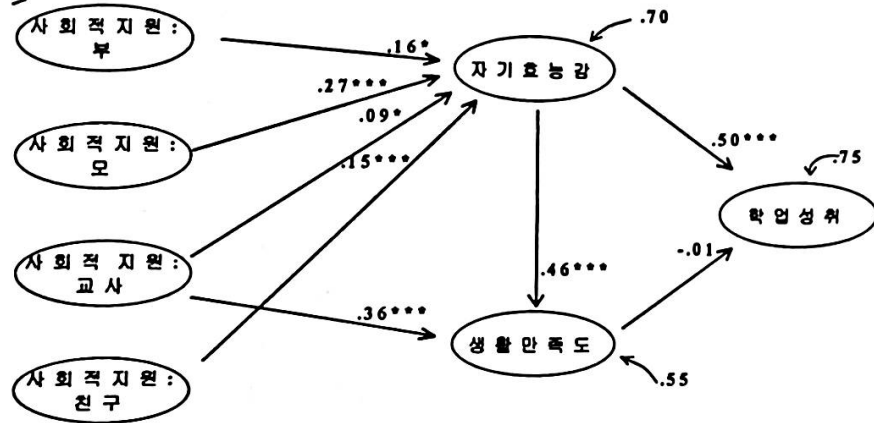
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는 자기효능감의 영향이 가장 높으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형성에 아버지의 사회적 지원이 가장 영향력을 가지며, 아버지의 사회적 지원은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초, 중, 고등학생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세 집단간에 몇 가지 유사점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초, 중,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은 자기효능감으로서, 직접효과가 .34~.50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업성취가 높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둘째,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초 중학생의 경우는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이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의미있는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셋째, 사회적 지원은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에 대해 직접효과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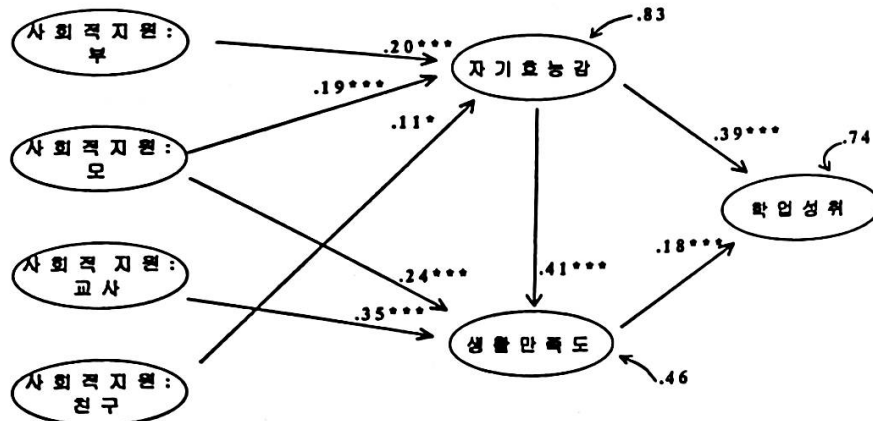
그러나 세 집단간에 다음과 같은 현저한 차이점들이 나타났다. 첫째, 교사 및 부모지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이다.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는 교사지원이 직접효과 .36으로 가장 크며, 중학생도 교사지원이 가장 영향력이 크지만 모지원도 의미있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교사지원이 전혀 의미가 없고, 모지원은 의미있는 영향이 있으나 부지원의 영향이 직접효과 .4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 시기에는 선생님께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생활에서의 만족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중학생시기까지는 교사의 영향이 중요하나, 고등학생 시기가 되면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생활만족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고등학생이 되면 아버지의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교사 및 부모지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이다. 초등학생 시기에는 모지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나, 중학생시기에는 부모의 지원이 거의 유사하게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고등학생 시기에는 부지원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점차 성장할수록 어머니의 지원보다는 아버지의 지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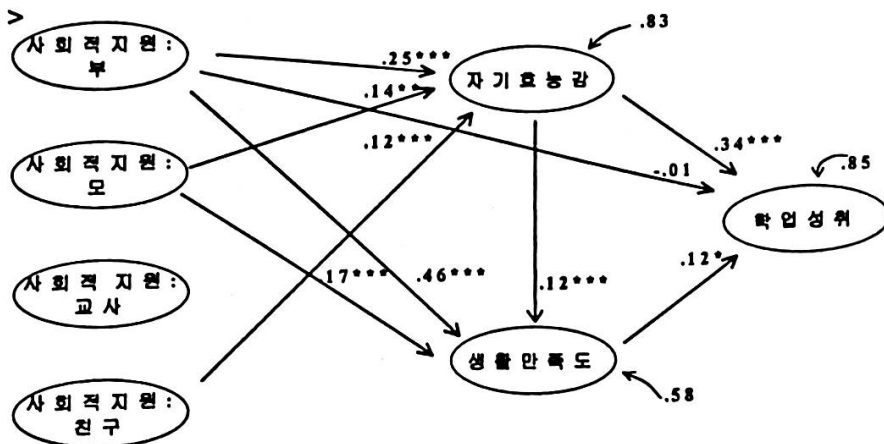


그림 3.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검증모형

영향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초등학생은 생활만족도가 학업성취에 의미있는 영향력이 없으나, 중 고등학생은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초, 중,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의 차이

초, 중, 고등학생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저한 특징들이 밝혀졌다. 첫째, 초, 중, 고등학생은 그들이 받는 사회적 지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한 차이가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됨에 따라, 부모와 교사 같은 주위의 영향력있는 성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감소하지만, 이와 반대로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증가한다. 이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함에 따라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보다는, 비슷한 연령의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초등학생이 가장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박영신과 김의철(예정)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초 중 고 대학생 1,074명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초등학생이 가장 부모의 애정을 많이 받고, 정서적 지원 및 정보적 지원도 많이 받았으며, 부모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고, 실제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았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될수록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점차 감소하는 것은,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증가하고, 부모가 직접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행동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며, 또래집단의 가치와 행동의 기준

은 청소년의 성격 및 사회성 발달에 밀접히 관련되고 볼 수 있다. 김의철과 박영신(1997)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친구의 도움이 가장 컸다는 경우가 약 64%나 되었으며, 이 외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원호택, 이민규, 1987; 이경희, 1995)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친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청소년이 도움을 받는 사회적 지원의 대상은, 부모보다 친구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청소년기에 심리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데 친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Lemper와 Clark-Lemper(1992)도 청소년 초기(11-13세), 중기(14-16세), 후기(17-19세) 집단 모두, 다섯 명의 의미있는 인간관계(부, 모, 가까운 형제 자매, 가까운 동성친구, 중요한 교사) 중에서 가까운 동성친구가 가장 친밀감과 동료의식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김의철, 박영신, 1997; 원호택, 이민규, 1987; 이경희, 1995; Lemper & Clark-Lemper, 1992)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기 내에서도 초기에서 후기로 발달함에 따라 더욱 친구의 사회적 지원이 중요해짐을 보여준다.

둘째, 학교수준별로 자기효능감이 차이가 있는데, 초등학생이 가장 자기효능감이 높다. 한편 학업성취 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자기조절동기효능감과 같이 학업과 관련된 효능감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고, 사회성효능감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차이가 있다. 중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결과는, 교육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Bandura(1997)는 중등학교로의 진학이 자기효능감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주요한 환경적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ccles와 Midgley(1989)는 초등학교에서의 인간적인 학교환경으로부터, 대학을 준비하거나 직업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등학교로 가면, 수업시간마다 교사가 바뀌는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기의 효능감 사회적 관계 위치 등을 재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적응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개인적 통제와 상실감을 느끼고, 자기에 대해 덜 확신하게 되며, 사

회적 평가에 더 민감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초, 중, 고등학생 집단간에 생활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다. 즉 초등학생이 중 고등학생에 비해 가장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고등학생은 세 집단 중에서도 가장 학교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낮다. 이와 같이 초등학생이 가장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부모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자기효능감도 가장 높은 것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부모 등 주위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거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박영신 등(1999)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진로문제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대부분은 학업문제(김의철, 박영신, 1997)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대부분은 취업을 앞두고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 특히 현재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입시를 목표로 학교교육의 모든 틀이 짜여져 있는 환경에서, 평일 하루 평균 14시간의 공부(김애송, 남희순, 1986)를 하는 상황은 절대적인 인내와 자기조절을 요구하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로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만족한 학교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의 인과관계

초, 중, 고등학생 집단 각각별로,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의 인과관계 모형을 구조적 관계 분석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가지 논의점이 가능하다.

첫째,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생활만족도나 학업성취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이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직접효과는 박영신 등(1999)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Bandura(1997)도 자기효능감이 우울증이나 기타 건강과 관련된 행동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의철 등(1998)의 연구에서도, 관계효능감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24% 설명하는 가장 예언력 높은 변

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매우 큰 영향이 있다는 결과는 서양(Bandura, 1997; Collins, 1982; Zimmerman, Bandura & Matinez-Pons, 1992)에서나 한국(김의철, 박영신, 1999a; Park & Kim, 1999a)에서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의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과는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Park과 Kim(1999b)이 폭력대처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학업성취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김의철과 박영신(1999a)은 사회성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오히려 사소한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에 기초하여, 자기효능감의 향상이 긍정적인 행동만을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 자기효능감과 청소년의 다양한 행동특성과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업성취를 결정하는데 있어 생활만족도보다는 자기효능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자기효능감의 학업성취에 대한 직접효과는 초 중 고 각각 .50, .39, .34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생활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대한 직접효과는 초, 중, 고 각각 $-.00(p > .05)$, $.18(p < .001)$, $.12(p < .05)$ 로서, 자기효능감에 비해 영향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이나 생활만족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으나,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에 따라 그 영향력의 정도가 청소년 초기에서 후기로의 발달단계별로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모지원에 의해,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는 교사지원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으며,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부지원 및 모지원에 의해, 중학생의 생활만족도는 교사지원 및 모지원에 의해,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는 부지원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기 동안 교사의 사회적 지원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초등학생의 자기효능

감이나 생활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특성의 형성과정에
서 교사의 영향력이 높으나, 중·고등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라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약해진다. Lempers와
Clark-Lempers(1992)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 집단 모두, 부, 모, 가까운 형제자매, 가까
운 친구, 중요한 교사 중에서, 교사가 친밀감을 주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바 있다. 교사지원과는 반
대로 아버지의 지원은 자기효능감이나 생활만족도의
형성에 점차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확인된 가장 큰 의의는 사
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그동안의 선
행연구 결과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관계
에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한 점에
라고 할 수 있다. House, Landis와 Umberson(1988)
은 관련 문헌을 정리하여, 결혼이나 친구관계 등 사
회적인 관계는 신체적·심리적인 건강과 관계가 있으
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고 사망
률이 높음을 밝혔다. 박영신 등(1999)은 House,
Landis와 Umberson(1988)이 밝힌 사회적 지원과 생
활만족도의 관계가 자기효능감에 의해 매개됨을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초, 중,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을 제공자의 면에서
정교화한 수정된 인과모형을 적용하여 공변량구조분
석을 하였을 때에도,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가 유의
하므로써,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자
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검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학생집단 뿐만
아니라, 성인집단을 대상으로도 모형을 타당화 해나
가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동안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많은 연구(박영신 등,
1999)들에서 사회적 지원을 하나의 변인으로 다룬 경
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 제공
자를 분류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를 인식하고
발달단계별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후속연구에서 사
회적 지원을 제공자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사
는, 이 연구의 여러 결과들로부터 종합된다. 한 예로

부 모 및 교사로부터의 지원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
생으로 됨에 따라 하강적 변화를 하지만, 친구의 지
원은 상승적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초등학생
은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직접효과가 있는 중요한 변
인이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의미있는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변인으로 확인된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종
합하여 볼 때,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하나의
변인으로 다루기 보다는, 누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인가에 관심을 갖고 변인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관심
을 끄는 결과는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의 증가이
다. 청소년기에 친구의 중요성은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긍정적인 사회적 지원 뿐만 아니라, 동성
친구와의 관계가 가장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사건
의 원인으로(황정규, 1990), 비행친구와 접촉을 많이
한 청소년일수록 실제적인 비행의 정도가 높게 되는
비행의 원인(김준호, 노성호, 고경임, 최원기, 1990)으
로도 작용하며, 친구의 문제행동이 청소년의 문제행
동을 가장 잘 예언하는 변인으로(Dryfoos, 1990;
Elliott, Huizinga, & Ageton, 1985), 친구가 훔치거나
싸우거나 약물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고한 청소년들일
수록 그러한 종류의 행동을 더 많이 한다(Dishion &
Loeber, 1985)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
에서는 청소년기 친구관계의 변화 및 이러한 친구관
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하며, 이러한 연구문제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분석
해 본다면 더욱 이상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에 대한 분석도
할 계획이다. 청소년 초기나 중기에 비해 후기 청년
집단으로서의 대학생은 생활환경과 역할에 많은 차이
가 있고 심리적인 성숙도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밝혀진 변인들간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대학생집단에서도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와 생활만족도를 설명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또한 고등학생에
서와 같이 교사(교수)지원이 의미가 없고 부지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해 지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검증모형을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타당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박영신 등(1999)의 연구에서 도시와 농촌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인과모형을 검증한 바 있는데, 동일한 자료를 이 연구에서의 인과모형에 토대하여 재분석함으로써 이 연구에서의 초등학교 결과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지 타당화하고자 한다. 또한 김의철과 박영신(1999)의 연구에서 전국 도시와 농촌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에 대해 분석한 바 있는데, 동일 자료를 이 연구에서의 인과모형을 적용하여 재분석하여, 과연 이 연구에서 밝혀진 중학생 검증모형에서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지 타당화 작업을 계속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거듭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이 확인되므로써, 후속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변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어 나갈 필요가 시사된다.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정교한 대안 모형들을 설정하고, 적합도검증을 통해 모형을 확정하여,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계속적으로 타당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Zimmerman, Bandura와 Matinez-Pons(1992)는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취효능감이 높고, 나아가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구성된 모형을 경로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Kim(1999)은 과학에서 상호작용모델의 필요성을 지적(김의철, 박영신, 1999b)하고, 이 모델에서는 개인의 생성적인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이 바로 이러한 생성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Bandura, 1999)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러한 상호작용모델을 검증해 나가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종단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초, 중, 고등학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자료를 분석하였으므로, 이 연구에서 밝혀진 초, 중, 고등학교의 결과를 발달적 변화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집단간 차이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표집된 대상을 계속 추적하여, 초등학교로부터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또는 재수생이나 직장인 등)으로의 변화를 추적하여 계속 분석함으로써 종단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비교문화적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밝혀진 인과관계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이 연구에서 확인된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기여도 등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미국 독일 일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동서양의 다른 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이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들이 나오는지, 후속연구에서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2000). 세대갈등과 사회질서(I)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애송, 남희순(1986). 초 중 고등학교 학생생활시간 조사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96-7.
- 김의철, 박영신(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 김의철, 박영신(1998).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교육심리연구, 12(2), 51-84.
- 김의철, 박영신(1999a).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1999b). 서장.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문화심리학회서 2. 서울: 교육과학사.
- 김의철, 박영신, 박금주(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79-101.
- 김준호, 노성호, 고경임, 최원기(1990). 청소년비행의

-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박영신(1997). 청소년 자기효능감과 통제부위신념의
형성요인. 안귀덕, 황정규, 김의철, 박영신. 한국
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pp.
41-17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영신, 김의철(1997). 한국 학생의 귀인양식: 초 중 고
대학생의 비교. *교육심리연구*, 11(2), 71-97.
- 박영신, 김의철(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
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29-53.
- 박영신, 김의철(1999a). 실패와 미래성취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교육학연구*, 37(3), 139-172.
- 박영신, 김의철(1999b). 귀인양식의 변화와 개념구조
에 대한 분석. *교육심리연구*, 13(3), 119-165.
- 박영신, 김의철(예정).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
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1999). 초등학생의 생
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
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
지: 사회문제, 5(1), 57-76.
- 박영신, 박동현, 김의철(1998).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안전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사회교육학
회, 사회교육학연구, 4(1), 277-307.
- 원호택, 이민규(1987).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6(1), 22-32.
- 이경희(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목(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이중목(1990).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행동
과의 관계에 관한 공변량 구조모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선배(1996).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영지
문화사.
- 황정규(1990). 한국 학생의 스트레스 측정과 형성. 서
울대학교 사범대학, 사대논총, 41, 25-66.
- Bandura, A. (1995). *Manual for the construction of
self-efficacy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ndura, A. (1999).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21-42.
- Collins, J. L. (1982). *Self-efficacy and ability in
achievement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York.
- Dishion, T. J., & Loeber, M. R. (1985). Adolescent
marijuana and alcohol use: The role of parents
and peers revisited. *American Journal of Drug
& Alcohol Abuse*, 11, 11-25.
- Dryfoos, J. G. (1990). *Adolescent at risk:
Prevalence and preven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ccles, J. S., & Midgley, C. (1989). State-
environment fit: Developmentally appropriate
classrooms for young adolescents. In R. Ames
& C. Ames (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Vol. 3. Goals and cognitions* (pp.
139-186). New York: Academic.
- Elliott, D. S., Huizinga, D., & Ageton, S. S. (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Beverly
Hills: Sage.
- Fassinger, R. E. (1987).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4),
425-436.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Jourden, F. (1991). *The influence of feedback
framing on the self-regulatory mechanism
governing complex decision mak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 Kim, U. (1996). Illness behavior pattern of Korean
Nationals, Korean-Canadians, Korean-

Americans, and Korean-Japanese. 제 30차 정신
건강연구소 학술세미나: 질병행동과 정신건강.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 663-676.

- Kim, U. (1999). After the crisis in social
psychology: Development of the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19.
- Lemper, J. D., & Clark-Lemper, D. S. (1992).
Young,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omparisons of the functional importance of
five significant relationship.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1(1), 53-96.
- Lumsden, D. P. (1984). On assessing and
ameliorating the "costs" of social life. In D. P.
Lumsden (Ed.), *Community mental health in
action*. Ottawa: Canadian Public Health
Association.
- Park, Y. S., & Kim, U. (1999a). The educational
challenge of Korea in the global era: The role
of family, school, and government. *Education
Journal*, 27, 91-120.
- Park, Y. S., & Kim, U. (1999b).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school violence in Korea: The role
of family, school, peer group, and society*.
Paper presented at The Thi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ASP), *Striving for a New Era of Asian
Social Psychology*, August 4-7, Academia
Sinica, Taipei, Taiwan.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Zimmerman, B. J., & Bandura A. (1994). Impact of
self-regulatory influences on writing course
attain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 845-862.
- Zimmerman, B. J., Bandura, A., & Martinez-Pons,
M. (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Causes and Consequences of Life-satisfaction among Primary,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Park, Young-Shin Kim, Uichol Chung, Kab-Soon Lee, Sang-Mi Kwon, Hyug-Ho Yang, Kye-Min

Dept. of Education Dept. of Psychology
Inha Univ. Chung-Ang Univ.

Dept. of Education
Inha Univ.

Dept. of Psychology
Chung-Ang Univ.

This article examin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life-satisfaction and academic grade among primary,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A total of 3,095 students (961 primary, 898 junior high, and 1,236 senior high stud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first two authors and the self-efficacy scale developed by Bandura (1995). Results of analysis of co-variance indicated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Specifically, primary school students had higher scores on life-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received from parents. Although the social support received from parents and teachers decreased with age, social support received from friends increased. LISREL analyses indicated that social support influences self-efficacy and life-satisfaction. Secondly, self-efficacy influences life-satisfaction and academic grade. When we examined differences among the providers of social support, the influence of teachers decreases with age and the importance of paternal social support increases with age. Finally, self-efficacy had strong influence on life-satisfaction and academic grades.